변방의 북소리

(눅2:8-20)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변방의 북소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변방의 북소리'라는 말이 특별히 유명하게 된 것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유머 1번지>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심형래 씨, 임하룡 씨 등이 출연한 코너였는데, 옛날에는 국경을 접

하고 있는 변방에 외적이 침입한다든지 위기상황이 되게 되면 북을 울려서 경계상태를 알리곤 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변방의 북소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풍자해서 만든 코미디 프로그램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변방의 북소리라는 말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변방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의미에서 변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류의 삶이 있고,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사회적인 의미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방의 북소리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쓰는가 하면,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 변방에 속한 사람들의 절규가 언론에서 이슈화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못한 채 묻혀버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중궁궐까지 변방의 북소리는 아득하기만 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의 이 minority들의 필요와 요청 같은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변방의 북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변방의 북소리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아기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사건을 놓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변방의 북소리'라는 겁니다.
변방의 북소리이기 때문에 변방의 북소리로서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마음이 변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사회적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은 중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마음이 변방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변방의 북소리이다."

아기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알린 첫 번째 그룹이 바로 베들레헴 성 밖의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복음의 이 첫 번째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이들이 바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변방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해 놓은 주석의 설명을 보면 목자들이 세리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사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계층이 세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별명 붙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세리들이 받는 그런 대우를 받는 천한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창기나 세리처럼 죄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에서는 변방이었지요.

그러면 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주의 탄생이 이렇게 변방에 속한 사람들에게 처음 전달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사회적으로 변방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천하게 여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긍휼과 사랑에 의한 선택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첫 번째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첫 번째로 듣게 될까요?
그것은 마태나 마가에서 이야기된 대로, 그리고 누가에서는 그 얘기는 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가까운 천국을 맞아들인 데오빌로, 떼오스 필레오,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된 데오빌로에게는 이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누가복음 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이 세상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옛날, 조선시대의 교통과 도로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아홉 개의 대 간선도로가 뻗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도로가 있는데, 1번 도로가 한양에서 의주까지 연결하는 지금의 경의선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두만강, 동해안, 부산, 통영,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강화도, 이렇게 아홉 개의 도로가 뻗어있으면서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번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였었는데, 그 1번 도로의 우리나라의 맨 끝, 한양에서 보면 변방이 의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주로 이 1번 도로를 사용해서 이 도로를 '사행로'라고 했다고 해요.
중국의 사신들이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조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의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변방의 북소리가 들리면서 사신을 기다리던 다른 한양에 가까운 후방으로 점점 알려주는 거죠, 말을 타고 달려와서 알려주든지 간에.
제일 먼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나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 세상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제일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비하면 변방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려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사실이 참 재미있어요.
사회적으로 최 변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을 때, 이 목자들은 놀랐지마는 기쁨을 가지고 그 말구유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나사렛 변방에 살던 평민들이 그저 보통 수준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 중에서 제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목자들과 같이 취급받았던 세리 중에서도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세 차례 하시는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만나고 점점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과 접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유대사회 내에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 집권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부딪히게 될 때 결국은 갈등이 심화되게 되고, 예수님도 갈등을 극한으로 표현하시면서 성전 정화와 같은 과격한 행위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데, 빌라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의 집권자들입니다, 중앙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넘겨졌을 때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 변방에 있는 목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했고 갈릴리 변방에 살고 있던 일반 평민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집권으로 만남이 진전됨에 따라 집권자들일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갈등과 논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변방의 북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방의 북소리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아득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변방이 뭡니까?
이 인간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여겨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없는 곳이 바로 변방입니다.
가치가 몰려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왜 복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

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사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긴 것들을 가진 자들이 중앙 집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마음에 모셔 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분이 없어요.
남은 마음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가까이 와있는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전해지고 있을 때, 이 천사들이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방에 있는 자들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세리들도 결국은 똑같은 변방에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소식을 전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규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대제사장보다 천국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게 될 수 있었지마는, 목자들은 그냥 양이 관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양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그러나 양을 돌보아야 되는 관심에 의해서 살고 있던 자들이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명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갖고 있어도 변방일 수 있고, 갖고 있지 않아도 중앙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최고로 좋아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지만 그 돈과 내가 따로 노는 변방의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변방의 북소리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게, 구세주가 오신 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선악과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가 뭐 하는 것이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좋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쳐놓고서 좋은 것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의 결과고 죄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가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좋은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유전죄, 원죄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을 유일하게 좋은 대상으로써 우리들에게 갖게 해주겠다고 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정해놓은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세상이 정해놓은 좋은 것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변방에 있어야, 세상의 좋은 것들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라야 하나님을 유일한 좋은 분으로써 내 마음에 모셔 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을 변방의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좋은 대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진정한 데오빌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립니다, 역사적으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진짜 데오빌로는 마음이 변방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려니까.

하나님과 친해진 자가 각하입니다, 가장 존엄한 자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친한 자가 비서실장이고 장관들입니다, 아! 존엄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방에 놓이게 된 마음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될 때에 얼마나 존엄한 자가 되겠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 때, 각하라는 말이 바로 존엄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변방에 놓인 마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친해졌으므로 정말로 존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방의 북소리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방에 놓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좋다고 하는 가치들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있을 때 그것에 스며들지 않고 없을 때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비천과 부함에 동시에 자유롭게 처할 수 있는 상태,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마음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변방의 북소리에요.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변방에 놓여짐으로써 변방의 북소리가 귀에서 언제나 쟁쟁하는 이 천사들의 노래가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내 심령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회적인 의미에서 변방에 속한 목자들에게 복음이 첫 번째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언제나 마음이 이 세상 가치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변방에 놓여 진 마음이 되게 해주시므로,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